

Letter from Blacksburg

블랙스버그는 선교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소식지를 보내 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이 소식지를 받으시고, 몇 분이라도 답장을 보내주실 것 같은 기대감에 설렙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려 주시고 기도 제목도 보내 주실 것 같은 기대도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 뿐 아니라, 혹시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라도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셨던 분들의 작은 소식이라도 저희에게 전해주신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 생활하셨던 모든 분들이 궁금하고 그립습니다.

수년 전 센터빌의 한 교회에서 대학-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몇몇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사회문화적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며, 대학-청년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블랙스버그에서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교인 대부분이 학생인 상황, 몇 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나면 진학과 취업을 하며 떠나는 상황, 학생 중심의 교회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긴 재정적 어려움과 훈련된 리더도 떠나는 상황 등등. 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 분이 “그곳이 선교지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블랙스버그는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는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때와 동일한 환경에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있던 사람은 단 1명도 지금은 없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도 이제 블랙스버그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듯 지금 블랙스버그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도 준비가 되면 떠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교회이며, 또한 보내는 것이 사명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 흩어져야 하고, 또 자꾸 보내야 합니다.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난 40년 간 교회의 역량과 내면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동안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거쳐 세계 각지로 보냄 받아 흩어진 수백 수천명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블랙스버그에서 예수를 만났고, 어떤 이는 부인 성경공부(지금의 ‘리브가 성경공부’)를 통해 처음 신앙이 성장했으며, 누구는 학업에 지친 마음을 예배와 찬양을 통해 위로 받았고,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친구를 만났고, 배우자를 만났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명의 대학청년들과 가정들이 여기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열매이며, 자랑입니다.

지난 봄, 1980년대에 남편이 버지니아 텍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Korean Baptist Church of Blacksburg)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여, 여러가지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보스턴에서 살고 계신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버지니아 텍을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를 생각하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고, 아직도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슴이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 교회가 아직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긴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어설픔고 약했던 교회는 분명히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지난 40년간 이루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현장에 계셨던 증인들이며, 그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 여기에,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지나가거나 여기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이 더하기도 빠지도 않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사형통이나 복 받아 돈만 많이 가지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험하고 외로운 길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기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열매를 맛보도록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가 블랙스버그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의 구성 비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젊어졌습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싱글이며, 대학부 (LOGOS, 예전의 KCCC)와 청년부 (Rhema)가 성도의 주 구성원입니다. 현재 가정 순은 2개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이 줄어 주일학교 (유치,초중고) 학생도 10명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적의 자리이며 선교지인 블랙스버그 한인교회를 위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신다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스버그를 지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들러 주십시오.

2022년 8월.

임동진 목사, 전예영 사모 드림.

헌금/재정지원

[Kbcb.us/paypal](https://kbc.us/paypal)-헌금

한국에서 헌금하실 때는 미국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교회 주소: 550 North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기도제목

- 새학기, 새학년 잘 시작하도록 도와소서
 - 새학기의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소서
 - 우리의 리더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 문의: kbc.pastor@gmail.com

Upcoming Events

- 8/22: Virginia Tech, Radford 개강
- 8/26: LOGOS (대학부) 새학기 환영회
- 9/7: 에스더 기도모임
- 9/16-18: LOGOS 가을 수련회
- 10/2: 야외예배



임동진 목사님, 전예영 사모님, 임예섭, 임은섭